



市政新聞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19면)

방이초교 양궁부 훈련시설 개선 방안 논의

전정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장, 현장 간담회

송파구의회 전정 행정교육위원장이 방이초등학교를 찾아 양궁부 훈련 시설을 세심히 둘러보고, 학교 관계자들과 훈련 환경 개선 및 전용 시설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전정 행정교육위원장은 “학생 선수들이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에 앞서 안전하게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들의 기본무”라며, “오늘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실태를 바탕으로 교육청 및 송파구청 등 관련 기관과 적극

적으로 협의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찾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현재 학생 선수 15명과 지도자·코칭 스태프가 합심해 연중 훈련을 수행하며 각종 전국·지역 대회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교내에 별도의 전용 양궁장이 없어 학교 주차장 필로티 공간 등을 임시 훈련 장소로 활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 노출과 더불어 안정적인 연습 환경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전 위원



전정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장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장은 실제 훈련이 이뤄지는 주차장 일대를 면밀히 확인하고,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임시 시설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과 양궁부 운영 현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홍준성 기자 / roff1116@naver.com